

# 자녀보충교육투자의 유형과 결정요인\*

##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Supplementary Educational Investment on Children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 사 주 인 숙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Instructor : In-Sook Ju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families' supplementary educational investment on children. By supplementary educational investment, it meant the amounts of money spent on children's education other than regular formal schooling expenses. The data used were from the 「1996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luster analysis and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cluster analysis revealed five different patterns of family supplementary education expenses with relatively even proportion of families allocated to each pattern. The five education expenditure patterns were arts education dominant; other education dominant; gymnastics · clerical · computer education dominant; college entrance exam preparation dominant; and private tutoring dominant.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in a pattern affected by various family socioeconomic variables.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se patterns were children's schooling stage, residence, and mother's education.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6-97 국외박사후연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교육을 위한 지출은 미래지향적이고 확장적인 소비로서 투자의 속성을 갖는다. 사람들은 교육에의 투자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다 만족한 삶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60년대 이후 확립된 인적자본투자이론의 옹호자들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본에의 투자가 개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생산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역설하였다 (Schultz, 1961; Becker, 1964, 1993; Mincer, 1962). 따라서 여러 선진국들은 사회가 발전함과 함께 공적 교육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OECD, 1998), 그럼으로써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교육을 위한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 구조의 독특한 특성은 개별가계의 지출이 국가가 지출하는 공적지출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지출이 GDP대비 6%에 이르고 있음에 반해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크게 대조된다(윤건영·최영순, 1997). 이러한 사실은 첫째, 개별가계의 교육비지출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둘째, 사교육비의 지나친 과대는 정상적인 공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사회구성원에 있어 교육의 기회가 개별가계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해 크게 제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회의 소득불평등의 요소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점(Gregorio & Jong-Wha Lee, 1998)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사교육비지출 중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부분은 정규학교교육비 지출이 아닌 가계의 사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출로서 보충교육비지출 또는 과외비지출이라 할 수 있다.

### 2.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지출 중 정규 학교교육을 위한 지출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녀보충교육투자의 지출행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의 자녀교육비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특히 96년 이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과외교육비 등의 실태 및 가계부담정도, 지출 결정요인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가계의 교육비 중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지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보충교육비(또는 과외비)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관점의 심층적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녀의 보충교육투자 지출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2. 자녀의 보충교육투자 지출 유형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는 가계가 선택하는 자녀 교육투자의 실태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현 제도하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수요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수요가 공적 교육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숙고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교육투자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인적자본이론에 의해서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그로 인한 미래의 이득이 투자를 위해 소용된 현재의 비용을 초과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1960년대 초 이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인적투자활동 중 특히 교육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Becker, 1964, 1993; Mincer, 1970; Douglass, 1977). 더욱이 교육의 이득에 임금뿐만 아니고 가정

생산이나 그 외의 비화폐적 이득이 포함될 때 교육이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1976; Schiller, 1998; Leibowizz, 1974; 김기욱, 1988).

한편 교육이 개인의 소득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과에 대한 선별가설 (screening hypothesis)이 있다. 인적자본투자이론이 교육의 생산성 향상 역할을 통한 소득증가 효과를 논한다면 선별가설은 학위 등의 교육적 증명이 고용주로 하여금 특정 교육을 받은 개인을 선별하는데 '신호'로 작용하며, 그럼으로써 교육을 받은 개인은 실제 그의 생산성 정도와는 무관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차지하게 되는 면을 강조한다 (Blaug, 1976; Weiss, 1995).

인적자본이론 초기에 있어서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효과는 다소 과대 평가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방법론적인 정교화와 함께 관련 요인들이 통제됨으로써 그 효과는 점차 감소되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개인의 IQ 등과 같은 효과가 통제된 후 대학교육의 수익률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서 교육의 선별기능으로서의 효과는 이러한 수익률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으로써 대학교육의 순수수익률은 4.5% 밖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ouglass, 1977).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있어 최근 기술 발달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으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고등교육 및 고등인력에 대한 프리미엄은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chiller, 1998).

한편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출을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는 Becker와 Lewis(1973)의 '자녀의 수-질에 대한 상호작용이론'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출은 자녀의 수와 반대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급격한 자녀수 감소는 자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론은 일본이나 중국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Ohbuchi, 1988; Bian, 1996).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이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여성 1인의 출산율은 70년대 4.6명에서 97년에는 1.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통계청, 1998). 자녀의 수-질에 대한 상호작용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자녀수의 급격한 감소는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따라서 자녀 교육비 지출을 증가하게 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세정·이윤금 (1997)의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많은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일인당 자녀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하고 있었다.

## 2. 자녀교육비지출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 실태

통계청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도시가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수업료 등의 공교육비 포함)은 1991년 이전까지는 총소비지출의 7% 대를 차지하였으나 과외금지조치가 해제된 90년대에 들어 급격히 상승, 96년 이후에는 1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1997). 그러나 이는 전체 가구에 대한 평균값이므로 학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비지출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보인다.

대우경제연구소의 1993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문숙재, 김순미, 김성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이거나 취학전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우 총 교육비는 연간 228만원으로 총소득의 약 9.7%를 차지했으며, 이중 과외비지출은 평균 159만원으로 소득의 6.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외비지출을 분위별로 볼 때 상위 25%는 연평균 216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반해 하위 25%는 72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개별 가계에 따라 과외비지출에 큰 편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95년에서 97년에 걸쳐 대구 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 가계를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과외비)는 평균 23.8만원으로 가계소득의 약 9.2%를 차지하였다 (정영숙, 1998).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시준비로 인해 과외비지출이 많은 시기의 가계들을 대상으로 한 결

파이므로 평균 학부모가계의 자료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거주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의 가계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은 약 11만 2천원이었으며, 이중 약 60%는 학습교육비로, 나머지 40%는 재능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1997년 2월 및 3월에 걸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조사된 전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는 수업료 및 교재비, 학용품 등과 같은 자녀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 말고도 학원이나 보충학습 등의 소위 과외학습을 위해 자녀 1인당 월평균 1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보원, 1997). 또 6대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도시 거주 가계는 월평균 25만 4천 원의 과외학습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7. 4. 23). 이러한 교육비 지출은 서울 거주 가계에서 월등히 높은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조사에 의하면 최근의 경제위기하에서도 서울 및 신도시 거주 가계들은 월생활비의 28%를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1998. 8. 18).

미국의 경우 가계의 교육비지출은 도서비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정의를 더 넓게 하고 있지만 그의 총액은 가계 소비지출의 2%를 넘지 않고 있다(Lee, 1995; Lino, 1996). 따라서 연구 관심은 가계에 의한 교육비지출보다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한 공적 교육비지출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 있어서도 98년 12월 현재 가계의 교육비지출은 소득대비 1.1%, 소비지출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apanese Statistics Bureau, 1998). 이같이 다른 사회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비지출은 우리 사회의 소비지출 형태를 결정짓는 매우 독특한 요소라 볼 수 있다.

## 2) 가계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 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 자료를 별도로 보고자 한다. 이는 왜냐하면 교육에 관한 한 우리 사회 특유의 교육

에 대한 높은 가치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관련 교육환경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 있어 가계 교육비지출에 대한 연구관심은 지속적이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가계의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교육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거주지, 가구주 연령 및 교육, 가구주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자산이나 부채와 같은 가계 경제상태, 가계소득, 주거형태, 자녀 수, 자녀의 학령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변수별로 보다 자세히 보면, 먼저 거주지는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를 다변량분석에 포함하고 있는 연구를 보면 도시거주 가계가 기타 지역의 가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소보원, 1997; 문숙재 등, 1996), 특히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서울거주 가계가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김순미·김성희, 1998). 서울 거주 초등학생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인숙과 여정성(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강남에 거주하는 가계가 강북거주 가계보다 더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가구주 연령 및 교육수준도 가계의 총교육비 지출 및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양세정·이윤금, 1997; 정영숙, 1996; 김순미·김성희, 1998, 문숙재 등, 1996). 또한 자가 거주상태는 비자가(전세 및 월세) 가계에 비해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구소득 또한 가계의 지불능력을 높임으로써 자녀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또한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에 비해 교육비를 더 지출하고 있었으며(양세정, 이윤금, 1997), 가계의 자산이나 금융자산 정도도 가계의 경제적 능력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김순미·김성희, 1998; 정영숙, 1996a; 문숙재 등, 1996). 또한 어머니 교육수준은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수 중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김인숙·여정성, 1996).

자녀수 (또는 가족수)의 증가는 가계의 총교육비 지출 증가와 정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김순미·김성희, 1998; 정영숙, 1996; 문숙재 등, 1996; 박명희, 1976). 한편 교육비지출은 자녀의 학령에 따라서도 중요한 차이를 보여 초·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 더 높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문숙재 등, 1996). 반면 윤건영과 최영순(199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1인당 과외비가 고등학생 1인당 과외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비는 방학이나 학기초 등 연중 특정시기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양세정·이윤금, 1997).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위에서 열거한 사회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나 태도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투자와 관련을 가지는 학부모 의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공교육비 지출에는 인적자본투자의 관점이 설명력이 있는 반면,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은 교육의 선별기능적 관점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숙, 1996). 또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부모의 자녀교육투자에 대한 화폐적 vs 비화폐적 기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사교육 투자는 화폐적 이득에 대한 기대보다는 학벌 및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이득에 대한 기대에 그 중요한 유인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영숙, 1998).

이러한 국내 연구에 비하여 가계의 교육비지출을 분석하고 있는 외국의 연구는 소수이다. 먼저 중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금전적 투자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Bian(1996)의 연구는 자녀 일인당 금전적 지출을 그 분석의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전적 지출에는 교육비 이외에도 의료비, 의류비 등과 같은 자녀관련 제반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결과, 중국의 자녀 일인당 금전적 지출은 자녀가 남아일수록, 그리고 자녀가 도시에 거주할수록, 조부모와 함께 기거할수록, 그리고 첫째 자녀일수록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중국의 한자녀 갖기 정책이 가계당 자녀 수를 줄임으로써 가계의 자녀에 대한 금전적 투자, 즉 자녀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윤금(1997)의 연구는 미국의 소비자지출조사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 자료를 이용하여 편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자녀 인적자본투자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서 인적자본투자비는 교육비 이외에도 독서비 및 오락비, 건강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자녀 인적자본투자비보다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었으며, 이러한 지출은 가계 총지출의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결과 편모가계의 자녀 인적자본투자는 그 절대 액수나 상대적 비중 둘 다에서 양부모가계보다 더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Tan(1985)은 탄자니아의 중고등학생 가계를 대상으로 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계 관련변수는 학생의 성, 전공분야,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산이었는데, 이러한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보다도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등록학교의 성격(사립학교 vs 공립학교)이었다. 연구자는 사립학교 등록 학생수의 높은 비율로 볼 때 탄자니아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고 또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을 공립학교 교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교육비지출 연구는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있으나, 그 절대액이나 가계의 지출비중에서 규모가 작아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관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의「1996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전국조사로서 도시 및 시·군부 거주 비농가 약 3만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소득 및 소비지출, 저축 및 부채, 연간소득 등 가계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1996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의 가계 자료로서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인터뷰와 가계부 기록 방법(자계식)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 월소득 및 월교육비 지출 자료는 10월과 11월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충교육투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아 및 유치원 이상의 취학자녀를 둔 양부모 가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취학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세대 가구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에 이용된 가구수는 11,458가구였다.

## 2. 보충교육비의 범위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본 연구에 있어 교육비 항목은 기본적으로 원자료상의 분류에 의거하였다. 이에 의하면 교육비는 납입금과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교육비로 크게 구별되었다. 총교육비는 교육비의 4항목을 모두 합한 액수가 되며, 보충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납입금과 교재비, 문방구 비용과 같이 교육을 위한 필수지출을 제외한 액수가 된다. 보충교육비는 구체적으로 입시 및 예체능 학원비, 사무전산학원비, 개인과외비, 도서관비, 기타교육비가 포함되었다.

## 3. 분석방법 및 변수

자녀 보충교육비의 유형 및 유형별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자녀 보충교육비 지출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로짓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군집분석에서는 보다 신뢰도가 높은 군집의 수를 추출하기 위해 묶임계수와 나무그림이 사용되었다. 이와 비슷한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로는 Chung(1998)과 Fan과 Stafford(1994), 그리고 양세정과 주인숙(1994)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보충교육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군집분석에는 보충교육비를 구성하는 7개 세부항목의 구성비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7개 세부항목은 입시학원비, 예능학원비, 체육학원비, 사무전산학원비, 개인과외비를 포함하는 기타보충교육비, 도서관비, 그리고 기타교육비로 이루어졌다.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보충교육비 지출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단계로 로짓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이 사용되었다. 로짓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인 경우 집단 멤버십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다변량분석으로, 특히 가변수형태의 독립변수가 포함될 경우 판별분석에 비해 유리하다(Norusis, 1990). 로짓분석에서는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을 가장 크게 하는 회귀계수가 결정되는데, 그의 계수가 정(+)이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집단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부(-)이면 그러한 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로짓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앞에서 고찰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부모의 자녀교육투자는 먼저 가계의 현재 물적자원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는 가계소득 및 주거상태, 가계의 총저축 및 총부채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자녀의 수·질의 상호작용에서 예시하는 바에 따라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 시장소득, 직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시간사용 및 자녀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대유형(핵가족 vs 확대가족)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계 교육비는 거주지 및 자녀의 학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거주지 및 자녀의 취학상태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로짓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Prob}_i = e^{A + BX}$$

여기서 Prob<sub>i</sub>는 i 지출유형의 소속여부를 말하며, X는 위에서 설명한 독립변수들의 벡터, B는 로짓회귀계수, 그리고 A는 로짓회귀식의 상수항을 의미한다.

IV. 연구 결과

〈표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N=11458)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였다. 거주지별로 볼 때 13.3%가 서울에 있었으며 42.0%가 5개 광역시에, 그리고 44.7%가 기타 중소도시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양부모가 모두 있었지만 약 7%의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가구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39.5%, 고졸이 47.4%, 그리고 약 13%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보면 52.1%가 직업이 없었고 38.6%가 서비스직 또는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사무직 이상의 화이트칼라 직업군에 속해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취학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연령은 30 및 40대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녀의 취학상태를 보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반면 유치원생을 둔 가구는 27.4%, 대학생을 둔 가구는 13.3%였다. 평균 자녀수는 1.73명이었으며 90% 이상이 2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87%의 가구가 핵가족을 구성하고 있었다. 자가소유비율은 59.5%이었으며 27.3%는 전세에서, 13.2%는 월세로 기거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234만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96년 도시근로자가계의 월평균소득 215만원보다 다소 높았으며 월평균 어머니소득은 약 18만원이었다. 가구의 총저축액은 약 1,980만원이고 총부채액은 약 780만원이었다.

2) 보충교육비지출 실태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 총교육비는 196,377원으로 월평균소득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1〉은 이러한 교육비 지출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계 교육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소위 과외비라 할 수 있는 보충교육비로 이에 총교육비의 52%인 101,908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납입금은 가계 교육비중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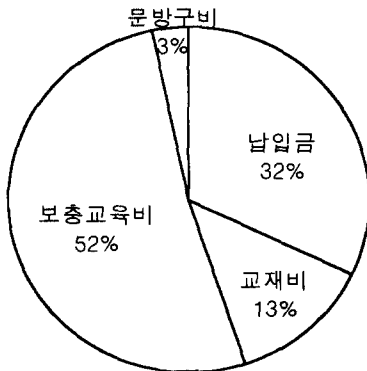
변 수	가구수 (%) / 평균
거주지	
서울	1523 (13.3)
광역시	4810 (42.0)
기타 중소도시	5125 (44.7)
가구주 성별	
남	10649 (92.9)
여	809 (7.1)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4532 (39.5)
고졸이하	5433 (47.4)
전문대졸 이하	444 (3.9)
대졸이하	979 (8.5)
대졸이상	70 (0.6)
어머니 직업	
관리전문직	328 (2.9)
준전문직	275 (2.4)
사무직	469 (4.1)
서비스직	2154 (18.8)
노무직	2264 (19.8)
무직	5968 (52.1)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810 (7.1)
30대	6004 (52.4)
40대	3674 (32.1)
50대	827 (7.2)
60대 이상	143 (1.2)
취학자녀 상태	
유치원 재학	3144 (27.4)
초등학교 재학	5094 (44.5)
중고등학교 재학	5280 (46.1)
대학재학	1527 (13.3)
자녀수	평균=1.73
1인	4386 (38.3)
2인	5935 (51.8)
3인	992 (8.7)
4인 이상	145 (1.3)
세대형태	
핵가족	9967 (87.0)
확대가족	1491 (13.0)
자가상태	
자가	6819 (59.5)
전세	3128 (27.3)
월세	1511 (13.2)
월평균가구소득	2,345,504원
월평균어머니소득	180,953원
총저축액	19,860,550원
총부채액	7,806,200원

(62,644원)를 차지하였으며 교재비는 13% (25,313원), 문방구비는 3% (6,512원)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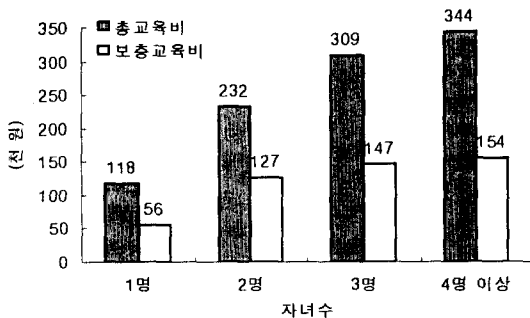
한편 자녀 보충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계는 9638가구로 전체가구의 83%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평균 보충교육비는 121,151원이었으며 가구소득 대비 5.2%를 차지했다. 이러한 보충교육비는 입시학원비에 24.3% (29,668원), 예능학원비에 23.1% (27,997원), 개인과의비를 포함하는 기타보충과외비에 30.1% (36,410원), 체육학원비에 4.8% (5,826원), 사무전산학원비에 3.6% (4,313원), 도서관비에 2.2% (2,664원), 기타교육비로 11.8% (14,271원)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림 2〉는 가계의 총교육비 및 보충교육비 지출이 자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조사대상가구의 교육비지출 구성



〈그림 2〉 자녀수와 가계교육비 지출



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명인 가구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총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보충교육비는 2.27배를 더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3명일 때 총교육비는 7만 7천원 증가한 반면 보충교육비는 2만원 증가하였다. 자녀가 4명 이상일 때 보충교육비는 3명에 비해 단지 7천 원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자녀수가 2명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납입금 및 교재비, 문방구비 등 교육의 필수적인 지출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보충교육비는 그 증가율이 자녀수의 증가와 함께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자녀 보충교육투자의 지출유형

가계의 자녀 인적 투자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충교육비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의 보충교육비지출은 그 지출구조상 성격이 상이한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의 왼쪽은 보충교육비를 구성하는 7개의 세부지출항목들이 나열되었고, 가운데는 분류된 지출유형 각각에 대한 세부지출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가장 오른쪽에는 전체가구의 보충교육비 지출구성비를 표시했으며 그림으로써 각 지출유형이 전체가구의 평균 수치에 비해 가지는 특징을 대비하였다.

제1유형은 보충교육비의 대다수 (79.43%)를 피아노나 미술 등 자녀의 예능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가계로 전체가구 평균인 23.11%의 3.4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예능학원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예능학원비 지배유형으로 명명되었다. 이들 예능학원비 지배유형은 2296가구로 구성되어 전체가구의 23.8%를 차지하였으며, 보충교육비 총액은 122,251원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금액과 비슷하였다.

제2유형은 보충교육비의 92.74%를 기타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계로 입시학원이나 예능, 체육 등 다른 종류의 보충교육을 위해서는 약 7%정도만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기타교육비 지배유형으로 명명되었다. 기타교육비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기부나 해외연수, 그 외의 자녀 교육과 연관되어 지출한 모든 금액을 포함한 것이다. 이들 기타교육비 지배유



〈표 2〉 보충교육비 지출유형별 구성분포

보충교육비항목	지출유형					전체가구*
	I	II	III	IV	V	
	예능학원비 지배유형	기타교육비 지배유형	체육전산학원비 지배유형	입시학원비 지배유형	개인과외비 지배유형	
가구수(%)	2296(23.8)	1790(19.0)	2296(23.8)	1792(18.6)	2503(26.0)	9638(100.0)
보충교육비(원)(%)	122,252 (100.00)	40,156 (100.00)	122,252 (100.00)	189,243 (100.00)	137,527 (100.00)	121,152 (100.00)
입시학원비	(1.11)	(0.58)	(3.40)	<b>(75.27)</b>	(2.33)	(24.29)
예능학원	<b>(79.43)</b>	(0.89)	(6.23)	(2.94)	(6.04)	(23.11)
체육학원비	(2.34)	(0.24)	<b>(26.14)</b>	(1.23)	(1.99)	(4.81)
사무전산학원비	(1.19)	(0.21)	<b>(20.56)</b>	(1.66)	(1.19)	(3.62)
기타보충교육비	(8.70)	(4.35)	(11.23)	(10.38)	<b>(78.79)</b>	(30.05)
기타교육비	(6.93)	<b>(92.74)</b>	(12.62)	(6.28)	(8.63)	(11.80)
도서관비	(0.29)	(1.00)	<b>(19.80)</b>	(2.24)	(1.04)	(2.23)

\* 보충교육비지출이 0보다 큰 가구만이 포함됨.

형은 1790가구로 전체가구의 19%를 차지했으며, 보충교육비총액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40,156원으로 전체 평균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제3유형은 체육학원과 사무전산학원, 그리고 도서관비에 보충교육비총액의 66.5%를 지출하는 가계로 체육·사무전산 지배 유형이라 명명되었다. 이들은 체육학원비와 사무전산학원에 전체가구 평균 비중의 5-6배, 도서관비에는 약 9배에 해당하는 비중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 집단에 속하는 가구는 1257가구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였으며 보충교육비 총액은 전체평균의 약 87%에 해당하는 104,801원이었다.

제4유형은 보충교육비의 75.27%를 입시학원비로 지출하는 입시학원비 지배유형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비중인 24.29%에 비해 약 3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집단은 전체가구의 18.6%에 해당하는 1792가구가 속해 있었다. 이들의 보충교육비는 모든 지출유형중 가장 높은 규모인 189,243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의 1.5배에 해당하였다.

제5유형은 기타보충교육비에 보충교육비의 대다수(78.79%)를 지출하는 집단이었다. 기타보충교육이란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적 보충교육 형태를 말하

는 것으로 개인과외나 교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타보충교육비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이 유형을 개인과외비 지배유형이라 이름하였다. 이들 집단은 전체가구의 26.0%인 2503가구였으며, 보충교육비 총액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137,527원이었다.

### 3. 자녀보충교육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이들 지출유형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요약하였다. 각 유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계수와 그 의 유의성이 표시되었다.

제1유형(예능학원비 지배유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거주지, 어머니 교육수준 및 연령, 자녀취학상태, 주거형태가 포함되었다. 서울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자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해 있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연령이 30대이고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직업이 서비스직이나 노무직인 경우,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재

〈표 3〉 보충교육비 지출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회귀계수

변 수	보충교육비 지출유형				
	I 예능학원비 지배유형	II 기타교육비 지배유형	III 체육전산학원비 지배유형	IV 입시학원비 지배유형	V 개인과외비 지배유형
거주지(기준:서울)					
광역시	0.1002	-0.0224	0.2011	-0.4866**	0.1498*
중소도시	0.3531**	0.1297	0.3559**	-0.8367**	-0.0187
가구구성(남자=1)	0.2012	0.0435	-0.0857	0.0893	-0.1462
교육(기준:중졸)					
고졸	0.4776**	-0.1987**	-0.2044**	0.0508	-0.0618
전문대졸	0.7142**	-0.2036	-0.2072	-0.0456	-0.3217*
대졸	0.8342**	-0.2793*	-0.4022**	0.0028	-0.2732**
대졸이상	0.9131**	-0.3482	0.0658	-0.5331	-0.0783
직업(기준:무직)					
관리전문직	-0.1884	0.3416	-0.1798	0.2920	-0.0022
준전문직	-0.0603	0.1556	-0.3314	-0.0149	0.1211
사무직	-0.1162	-0.1324	-0.3583	0.3255*	0.1899
서비스직	-0.1776*	-0.0444	0.1894*	-0.0731	0.1139
노무직	-0.3710**	-0.0107	0.2271**	0.1816**	-0.0226
연령(기준:20대)					
30대	0.2231*	-0.5014**	0.4463*	1.1116**	0.0642
40대	-0.0032	-0.3923**	0.6420**	1.0355*	0.0529
50대	-0.0816	0.0822	0.8002**	0.4261	-0.0165
60대 이상	0.1457	-0.2479	0.6891**	0.2473	0.3003
취학상태(재학=1)					
유치원재학	0.7757**	0.4762**	-0.4036**	-0.7937**	-0.6851**
초등학교 재학	0.8610**	-1.2599**	0.0261	-0.1427	0.4764**
중고등학교 재학	-1.5935**	-0.2640*	0.0285	2.6013**	-0.1839*
대학 재학	-0.7388**	0.9491**	0.1616	-0.6728**	-0.1793
자녀수	-0.1021	-0.2137**	-0.0498	0.1246*	0.1666**
확대가족	-0.0713	0.3262**	-0.0874	0.0403	-0.1270
주거(기준:자가)					
전세	-0.0333	0.1357*	-0.0254	-0.0052	-0.0489
월세	-0.2463**	0.0863	0.1674	-0.2046*	0.1420
월평균가구소득	2.10E-05	-0.0002**	-2.9E-05	0.0001**	9.97E-06
월평균어머니소득	6.33E-05	-1.2E-05	0.0001	-0.0002**	5.30E-05
총저축액	-1.3E-06	-3.3E-06*	7.83E-07	-2.0E-06*	3.29E-06**
총부채액	-7.1E-07	-4.63E-06*	5.03E-06*	-6.6E-06**	-1.1E-06
상수항	-2.0134**	0.1090	-2.4101**	-4.0780**	-1.3565

\* P &lt; 0.05; \*\* P &lt; 0.01

학중인 경우는 예능학원비 지배유형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한편 가구소득이나 어머니 소득은 정(+)의 효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고 자녀수의 증가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중소도시 거주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교육수준이 높은 전업주부의 어머니 가계가 이런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유형 (기타교육비 지배유형)에 속할 확률은 어머니 교육수준과 연령, 자녀의 취학상태, 자녀수, 확대가족, 주거형태, 그리고 가구소득과 총저축액, 총부채액의 가계 경제상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교육비란 학원이나 개인과의, 또는 도서관 이용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연수나 기부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여타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계는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반면 유치원과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가계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어머니 연령도 30대 및 40대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자녀수가 적고 확대가족의 가계에서, 그리고 자가에 비해 전세거주의 가계에서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가계소득 및 저축, 부채 수준이 낮을수록 가장 낮은 보충교육비 수준을 보이는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제3유형 (체육·전산학원비 지배유형)에 속하는 확률은 서울보다는 중소도시 거주일수록,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고, 서비스 및 노무직에 종사하며, 연령 또한 20대 보다는 30대 이상일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유치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가계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적었으며, 가계 총부채액의 증가 또한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제4유형 (입시학원비 지배유형)에 속할 확률은 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서울거주에 의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입시를 위한 보충교육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가구소득의 증가는 이러한 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사무직 및

노무직의 직업을 가지는 가계에서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고 있었다. 총저축액 및 총부채액의 증가는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계는 일반적으로 생활주기상 아직 자산이 많이 축적되거나 부채가 많이 누적되지 않은 중간 단계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녀수의 증가는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어 입시학원비가 자녀의 보충교육비중 특히 필수적인 지출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유형 (개인교육비 지배유형)에 속할 확률은 서울보다는 광역시 거주, 그리고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 의해 증가되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감소되고 있었으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또 총저축액이 많아질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증가되었다. 지방 대도시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원보다는 개인과의 위주의 보충교육 형태를 가지는 가계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보충교육비 지출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무엇보다도 자녀의 취학상태는 보충교육비 지출유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었다. 즉 예능학원비 지배유형과 개인교육비 지배유형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재학인 자녀를 가진 가계가, 입시학원비 지배유형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가계가 속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거주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지출유형에 따라 독특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거주는 입시학원비 지배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광역시 거주는 개인교육비 지배유형을, 중소도시 거주는 예능학원비 및 체육·전산학원비 지배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어머니 교육수준은 예능학원비 지배유형에 속하는 확률은 높였으나 체육·전산학원비 및 기타교육비, 개인교육비 지배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보충교육비 지출유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자녀의 보충교육을 위한 금전적 투자는 통

상적으로 보도되는 것보다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시위주의 보충교육이 지배적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이 비교적 높은 보충교육비 지출 수준을 보이기는 했으나, 가계는 예능 및 체육, 개인과외, 사무원산학원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녀보충교육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교육투자중 그동안 특별히 중고등학생의 입시 과외만이 부각되어 온 것은 그것이 대학진학을 위한 자녀를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인 지출로 자리잡고 있다(입시학원비 지배유형 참조)는 부담과 함께 보충교육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온 점, 그리고 최근 무리가 되고 있는 고액과외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계는 입시를 위한 보충교육 이외에도 이미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부터 광범위한 자녀 보충교육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 유형은 가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계는 납입금이나 교재비, 참고서나 가정학습지 등과 같이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자녀의 보충교육을 위해 총교육비의 52%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투자가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 가중이라는 이유 이외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자녀의 질적 투자에 대한 사교육 요구가 공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이 10월과 11월의 두 달에 제한된 것임으로 인해 예를 들면 대학재학생인 자녀의 수업료 납부 등의 교육비는 집계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기초 및 방학동안에 자녀의 보충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가계의 총교육비지출 및 보충교육비지출은 하향평가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인적투자 실태를 보다 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계 단위로 교육비를 분석하기보다는

일인당 교육비를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일인당 교육비 지출자료의 개발 및 수집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김기욱 (1998). 교육이 소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6(1), 123-133.
- 2) 김순미·김성희 (1998). 자녀의 학교 급별 교육비 지출: 두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 129-142.
- 3) 김인숙·여정성 (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4) 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 5)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한가정학회지*, 14(1), 549-563.
- 6) 조선일보 (1997. 4. 23). "사교육비 실태조사", 11면.
- 7) 소비자보호원 (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 방안.
- 8) 양세정·이윤금 (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 수와 자녀 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8(2), 81-99.
- 9) 양세정·주인숙 (1994). 가계저축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62-71.
- 10) 윤건영·최영순 (1998).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한국조세연구원.
- 11) 경향신문 (1998. 8. 18). "자녀 1명 사교육비", 9면.
- 12) 정영숙 (1996). 가계의 교육비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1.
- 13) \_\_\_\_\_ (1998). 사교육투자의 경제적 기대수익성: 화폐적 수익과 비화폐적 수익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9(1), 33-44.
- 14) 통계청 (1997). 1996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 15) \_\_\_\_\_ (199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보도자료.
- 16) Becker, G.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 17) Becker, G.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8) Becker, G., and Lewis, H.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S279-S288.
  - 19) Bian, J. (1996). Parental monetary investment in children: A focus on Chin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1), 113-139.
  - 20) Blaug, M. (September 1976). The empirical status of human capital theory: A slightly jaundice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 827-855.
  - 21) Chung, Y. S. (1998). Cul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United States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22(1), 39-50.
  - 22) Douglass, G. K. (1977). Economic returns on investments in higher education. In Bowen, H., Doud, P., and Douglass, G. (eds), *Investment in Learning: The Individual and Social Value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Publishers.
  - 23) Duncan, G. J. (1976). Earnings functions and nonpecuniary benefi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Fall, 462-483.
  - 24) Fan J., & Stafford, K. (1994). Determinants of consumer expenditure 패턴.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239-246.
  - 25) Gregoria, J. D., & Lee, J. W. (1998). Educ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New evidence from cross-country dat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6) Japanese Statistics Bureau (1998. 12).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 26) Lee, Yoon Geum (1995). *Human Capital-Enhancing Expenditures: A Comparison of F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USA.
  - 27) Leibowitz, Arleen (1974). Education and Home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4(2), 243-250.
  - 28) Lino, M. (1996).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1995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Miscellaneous Publication No. 1528-1995
  - 29) Mincer, J. (1970). The distribution of labor incom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8(1), 1-27.
  - 30) Mincer, J. (1962). On-the-job training: Costs, returns, and some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October), 50-79.
  - 31) Norusis, Marija (1990). *SPSS Advanced Statistics User's Guide*. SPSS Inc., USA.
  - 32) OECD (1998).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1998 Edition*.
  - 33) Ohbuchi, Hiroshi (1988. 5).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labor supply, and wages of married women in postwar Japan, *人口學研究*, 제 11호, 5-14.
  - 34) Schiller, B. (1998),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7th ed., Prentice-Hall, Inc., A Simon & Schuster Company, NJ.
  - 35) Schultz, T.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 36) Tan, J. P. (1985). The private direct cost of secondary schooling in Tanzania.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5(1), 1-10.
  - 37) Weiss, A. (1995). Human capital vs. Signalling Explanations of Wag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4), 133-154.